

6. 감정이입

: 화자의 정서(감정)를 외적 대상물에 이입해 표현하는 기법

1) 감정이입의 성립 조건

외적 대상물이 감정을 느끼는 주체 + 화자의 정서와 외적 대상물의 정서가 일치

2) 감정이입물과 객관적 상관물의 관계

객관적 상관물 :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이용된 외적 대상물

감정이입물 : 화자의 정서를 대신하는 외적 대상물

7. 활유법, 의인법(인격 부여)

1) 의인법이 성립하는 경우

인간이 아닌 것을 인칭 대명사로 호칭 ex) '백구야', '꽃아', '너'

인간이 아닌 것이 인간처럼 사고, 행위 ex) '나무가 춤을 춘다'

2) 의인법과 활유법의 관계

의인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활유법도 성립

활유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의인법이 성립하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 경우 모두 존재

ex)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 의인법(O), 활유법(O)

ex) 노을은 나어린 향수처럼 희미한 날개를 피고 있었다. → 의인법(X), 활유법(O)

8. 설의법

: 화자가 궁금하지 않은데 의문문을 사용하는 기법 (질문 목적이 아닌 강조 목적)

물음의 방식 활용 (O), 의문문 활용 (O), 의문형 종결 어미 활용 (O), 화자의 의문 표현 (X)

9. 대구법

: 유사한 통사 구조(문장 구조)의 어구를 짹 지어 표현하는 기법 → 리듬감을 주는 효과

해석의 근거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존재 (두 문장 간의 의미는 유사하거나 반대일 것)

ex) 돌담에 속삭이는 햅발같이 /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 주의 : 유사한 통사 구조의 단순 반복과 구분!

(대구법은 유사한 통사 구조의 어구를 '쫙 지어' 표현해야 함 →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대구법 X)

10. 연쇄법

: 앞 문장의 마지막 시어나 시구로 다음 문장이 시작하는 기법

ex) 닭아, 닭아, 우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3) 서술자 교체(=시점 이동=화자 변화)

3인칭 호칭으로 서술되던 인물이 1인칭 호칭('나')로 서술되거나 그 반대일 경우 서술자가 교체된 것!

- 예외1) '나'로 나오던 인물이 없어지고 다른 인물들의 내면이 직접 서술되는 경우

- 예외2) 1인칭이 유지된 채로 '나'가 바뀌는 경우

2. 객관적 서술

인물의 내면 심리가 서술되지 않아야 객관적 서술

	이야기 속 서술자(1인칭)	이야기 밖 서술자(3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비관찰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내면 심리가 서술 안 됨

내면 심리가 서술됨

→ 4가지 시점 중, 객관적 서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뿐!

※ 우리나라 소설 중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인 작품은 거의 없음

3. 의식의 흐름

: 인물의 내면을 여과 없이 즉각적으로 서술하는 기법 → 시간의 흐름 지연

ex)

나는 그러나 그들의 아무와도 놀지 않는다. 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도 않는다. 나는 내 아내와 인사하는 외에 누구와도 인사하고 싶지 않았다. 내 아내 외의 다른 사람과 인사를 하거나 놀거나 하는 것은 내 아내 낫을 보아 좋지 않은 일인 것만 같아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만큼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 한 까닭은 이 33번지 18가구 속에서 내 아내가 내 아내의 명함처럼 제일 작고 제일 아름다운 것을 안 까닭이다.

4. 순행, 역순행

1) 순행 : 시간 순 전개

2) 역순행 : 시간 역순 전개

5. 갈등

1) 내적 갈등 : 인물의 고뇌/괴로움

2) 외적 갈등 : 인물 간 대립, 논쟁

3) 갈등의 역동적/복합적 전개 : 갈등의 주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는 경우

4) 갈등의 고조와 해소

→ 갈등이 존재한다면 지문의 마지막 부분을 확인! (갈등 O : 갈등 고조 / 갈등 X : 갈등 해소)